



무안군청, 전국실업검도 개인전 유하늘 우승 무안군은 제28회 전국실업검도대회에서 무안군청 소속 유하늘(검도 6단) 선수가 6단부 개인전 우승과 김한범(검도 4단) 선수가 통합부 개인전 3위라는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한국실업검도연맹 주최로 충남 청양군 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26개 남녀 실업검도팀 5000여 명이 참가하여 승부를 거뒀다. /무안군 제공

순천·여수·광양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성료

순천시, 9개 종목 중 4개 종목 1위 획득 선전



순천시장애인체육회는 순천 팔마국민체육센터에서 '2024년 3개 시(순천, 여수, 광양) 장애인생활체육 교류전'을 가졌다. 순천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지난 12일 대회는 선수와 임원 등 총 300여 명이 참가했다. 장애인체육 정식종목 8개(게이트볼, 당구, 문발, 보치아, 배구, 배드민턴, 실내조정, 탁구)와 화합 종목 1개(단체줄넘기)를 종목별로 진행했다. /순천=조준익 기자

'이우성 결승타' KIA 6연승 질주

압도적 투타 KIA, 단독 선두...한화 3연패 이번 주 SSG 랜더스·NC 다이노스 차례로 상대



지난달 31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4 신한은행 SOL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5회초 2사 1,2루 KIA 박찬호 2타점 2루타 때 득점에 성공한 한호준, 최원준이 더그아웃으로 들어와 기뻐하고 있다.

프로야구 선두 KIA가 이우성 선수의 역전 적시타를 앞세워 한화에 주말 3연전 싸움이 승을 거두며 6연승을 달렸다. 한화를 3연패에 빠뜨리며 5할 승률도 무너뜨렸다. 지난주(9-14일) 6경기 모두 전승을 거둔만큼 거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덕분에 시즌 14승 4패를 기록한 KIA는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2위 NC 다이노스(13승 6패)와의 승차도 15경기로 벌렸다. 승리의 뒤에는 위력적인 마운드가 있었다. 원투펀치 제임스 네일과 월크로우가 연일 압도적인 피칭을 보여주고 있고, 토종 에이스 양현종도 연승에 기여하고 있다. 크로우와 네일은 이미 3승씩 올려 다승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다. 네일은 평균자책점 1.09로 이 부문 1위다. 볼펜에서는 광도규가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최지민과 장현식도 볼펜진을 이끌고 있다. KIA 마무리 정해영은 8경기 연속 세이브를 기록하며 뒷문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있다. 김도영과 최원준은 타선을 이끌고 있다. 베테랑 서건창의 영입도 전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됐다. KIA의 지난주팀 타율은 무려 0.322이다. 주말 3연전 마지막 날, 연승을 이어나가는 KIA와 연패를 끊으려는 한화는 나란히 외국인 에이스 선발을 내세웠다. 기아 1번 타자 김도영은 첫 타석부

터 한화 선발 산체스의 조구를 담당 뒤로 넘겼다. 이후 산체스는 연속 볼넷에 송구 실책까지 범하며 1회부터 2점을 헌납했다. 한화는 4회, 안타에 도루로 2루까지 간 안치홍이 김태연의 적시타로 홈을 밟으며 추격을 알렸다. 한화는 6회 안치홍과 노시환의 연속 안타에 이어 최인호의 희생플라이로 또다시 1점을 추가하며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KIA는 선발 네일이 동점을 허용한 뒤 몸 맞는 공을 던지며 역전 위기를 맞았지만, 뒤 이어 던진 이준영이 김강민을 삼진으로 잡아낸 덕에 기세를 끌어내렸다. KIA는 7회 이우성의 답장을 직격탄 장타로 역전에 성공, 곧바로 소크라테스의 적시타로 한 점 더 달아났다. KIA는 최지민과 전상현이 7회와 8회를 연달아 삼자범퇴 처리하며 승기를 지켰고, 9회 선두 타자 김호령이 ছেঁকা포까지 터뜨리며 6연승을 확정 지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KIA는 이번 주 1위 도약을 노리는 SSG 랜더스와 NC다이노스를 차례로 상대한다. /뉴스

전남드래곤즈, 안산과 홈경기서 1-1 무승부...3위 랭크

80분에 터진 박태용 동점골...승점 1점 더해 3위



전남드래곤즈가 지난 14일 K리그 2 2024 7라운드 안산과의 광양 홈경기서 1-1 무승부를 기록하며 값진 승점 1점을 챙겼다. 이로써 전남은 3승 1무 2패 승점 10점을 획득하며 K리그2 3위에 랭크됐다. 전남은 4-1-4-1 포메이션으로 안산을 상대했다. 양팀 모두 전방 압박으로 몰려서지 않고 맞대결을 펼쳤다. 전남 10분 안산 김범수의 돌파 후 내준 패스를 양세영이 밀어 넣어 안산이 앞서나갔다. 전남은 유효슈팅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경기를 풀지 못했다. 이에 전남은 만회골을 위해 하프타임에 박태용을 후반 14분 인천을, 25분 최성진을 투입하며 분위기 반전을 가했다. 그래도 전남은 좀처럼 기회를 잡

지 못하다 후반 35분 인천을의 안산 우측을 돌파 후 연결한 볼을 박태용이 터닝 오른발 슈팅을 끝로 성공시키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로써 전남은 이날 경기에서 유일한 유효슈팅을 동점골로 연결시켜 1-1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안산은 유효슈팅 3개 기록했으나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다. 동점골을 기록한 박태용은 "득점을 성공해 기쁘지만 경기 결과가 무승부가 되어서 아쉽다"면서 "다음 경기는 반드시 승리하여 승점 3점과 팬분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장관 감독은 "선수들 모두 집중력을 발휘했고 최선을 다해줬다. 다음 경기를 위해 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며 승점을 쌓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은 오는 17일 코리아컵 3라운드 경남 원정경기과 21일 K리그2 R8 충남아산 원정경기를 치른다. /광양=조준익 기자

전남체육회, 전국소년체전 종목별 경기장 현장점검 실시

전남도체육회가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종목별 경기장 현장점검에 나선다. 전남도체육회는 지난달 28일 전남도지사 주재 준비상황보고회 개최 후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의 성공개최 및 철저한 대회준비를 위해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와 함께 도내 22개 시·군, 67개 경기장에서 현장점검 및 임시시설물 설치 현장조사를 4월 15일부터 5월 13일까지 한 달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생이 참가 주축인 전국소년체전과 장애학생체전의 특성을 반영해, 홍보,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 눈높이와 관심사항에 맞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깊은 논의가 된 만큼 경기장 역시 선수들이 안전하게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시설 점검을 통해 성공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 호 기자

삼형제 주메뉴 : 삼형제생갈비, 삼형제꽃살

예약 061-337-3836 개별룸 단체석

나주시 산포면 영산로 5984-91 (나주 혁신도시 빛가동 중흥3차 옆)

제가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숯불생갈비 1인분(180g) 9,900원

NAVER

삼형제

좋아요

[삼형제 철학]

최상의 맛

최상의 품질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